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중 간 교역은 2010년 34.7억 달러에서 2014년 68.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8.6%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북한의 교역에서 對중국 의존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북중간 경제협력 현황을 통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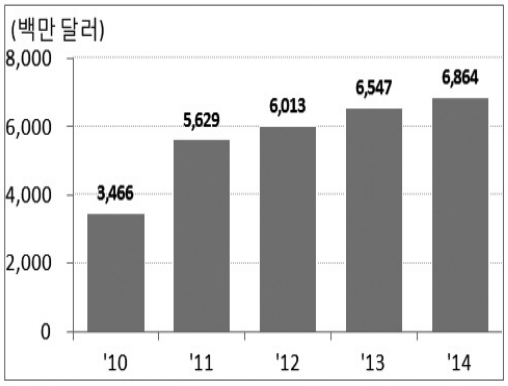
북중 간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 부문에서는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0.9억 달러에서 2014년 11.8억 달러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품목별로는 광물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對중국 최대 수출입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투자 부문에서도 중국의 對북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중간 접경지역 내 인프라 투자도 가속되고 있다. 중국의 對북한 직접투자로 신고된 잔액은 2003년 0.1억 달러에서 2013년 5.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9년 이후 철도, 항만 등 중국의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투자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셋째, 인적 교류 부문에서는 근로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 인력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는 2010년 5.4만 명에서 2013년 9.3만 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최근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과는 차별되는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첫째, 남북 경협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달성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남북 경협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간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하여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활용을 통해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인력, 광물자원, 관광자원 활용 관련 남북 경협과 북중 경협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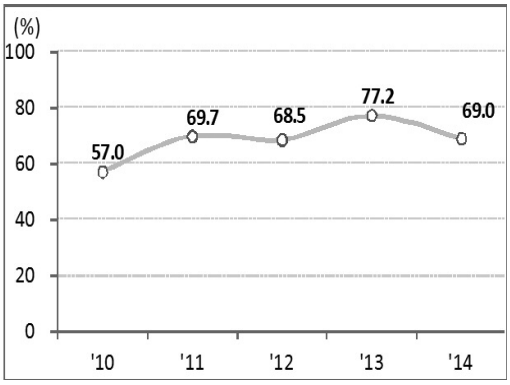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중 교역 총액은 2010년 34.7억 달러에서 2014년 68.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8.6%씩 증가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도 약 70%에 이르는 실정이다. 북한의 전체 교역 중 對중국 교역 비중은 2010년 57.0%에서 2014년 69.0%로 지속 확대되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7월 지린성과 랴오닝성 등 북중 접경지역을 잇달아 방문, 북중 경협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1]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북중 경협 현황을 살펴보고 남북 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최근 북중 교역 추이 〉



자료 : KOTRA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북한의 對중국 교역 비중 추이 〉



자료 : KOTRA 및 통일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북한의 전체 교역액(남북 교역 포함)대비 비중임.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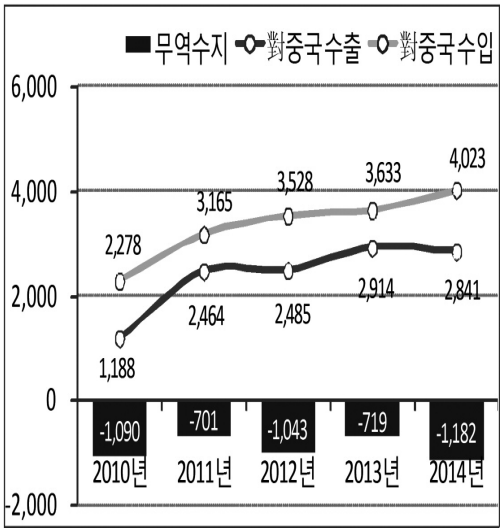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 품목은 광물성 연료 등

1) 2015년 1~5월 북중 교역이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한국무역협회)하는 등 2015년 상반기 북중 교역이 부진하였으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올해 7월 16일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구를 방문한 지 9일 만에 북중 접경 랴오닝성의 선양을 방문하면서 교역 활성화 기대감 확대.

광물자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수입총액은 2010년 22.8억 달러에서 2014년 40.2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5.3%씩 증가하였다. 對중국 수출총액은 동기간 11.9억 달러에서 28.4억 달러로 연평균 24.4%씩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0.9억 달러에서 2014년 11.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한편, 품목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 등 광물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對중국 수출 품목 중 광물성 연료 등 광물자원 비중은 2014년 현재 40.3%로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약 7%p 상승하며 최대 수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對중국 수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가 전체의 17.2%인 6.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다만, 對중국 수입에서 전기기기, 음향 등 전자제품 비중이 2010년 8.4%에서 2014년 10.4%로 소폭 상승하는 등 對중국 수입 구조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북중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KOTRA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북한, 베트남 수출, 수입 〉

(단위 : 억 달러)

구분	품목명	2010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광물성연료, 광물유	397	33.4	1,146	40.3
	의류, 부속품(편물)	187	15.7	622	21.9
	철광, 슬랙, 회	251	21.1	339	11.9
	기타	353	29.8	734	25.9
수입	광물성연료, 광물유	479	21.0	691	17.2
	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191	8.4	420	10.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245	10.8	310	7.7
	기타	1,363	59.8	2,602	64.7

자료 : KOTRA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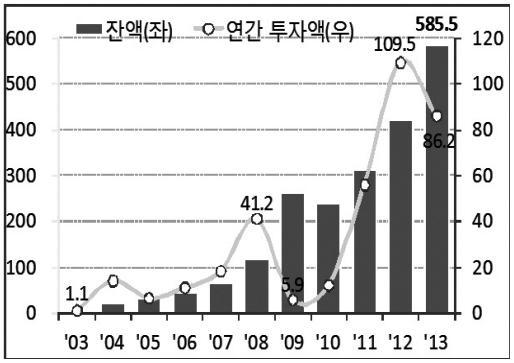
2) 2014년 중국의 주요 對북한 수출 품목인 원유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체 수입에서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축소.

투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對북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중간 접경지역 내 양국간 인프라 개발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對북한 투자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간 투자액 기준으로는 2009년 북중 간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2012년 1.1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13년 0.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3] 잔액 기준으로는 2003년 0.1억 달러에서 2013년 5.9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철도 · 도로 · 항만 등 북중간 접경지역 내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4]」 100개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북한 관련 대외통로 부문 투자 계획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도 2010년 위화도 · 황금평 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접경지역의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협력도 추진되고 있다.[5]

〈 중국의 對북한 직접투자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중국 상무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신고 금액 기준.

〈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개발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다리	– 신압록강대교(2010년) – 신두만강대교(2014년
도로	– 바다오(八道)~싼허(三合)~청진 고속도로(2015년) – 훈춘(琿春)~취안허(圈河)~라진(2015년) – 허룽(和龍)~난핑(南坪)~청진(2015년)
철도	– 허룽(和龍)~난핑(南坪)~무산(2015년) – 투먼(圖們)~남양~두만강~핫산(2020년) – 투먼(圖們)~청진(2020년) – 투먼(圖們)~라진(2020년) – 카이산툰(開山屯)~삼봉(2020년)
항만	– 나진항(2009년) – 청진항(2012년)

자료 : 조동호(2013) 및 KOTRA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 )는 개발 개시 연도를 의미. 단, 도로와 철도는 건설 시한을 의미.

3) 2009년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3성 진흥계획 중 對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 승인 후 중국의 인프라 개발 관련 對북한 투자가 급증. 조동호·남영숙,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 경협의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 4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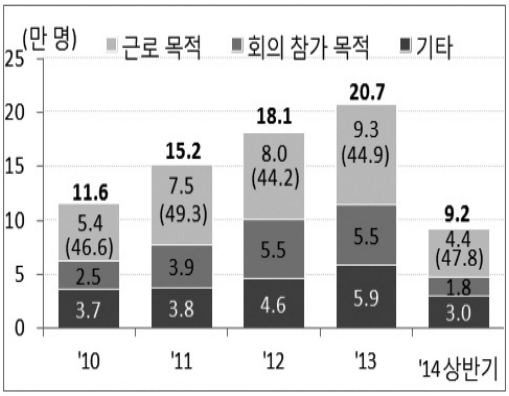
4)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개발계획은 지린성의 지역발전전략으로 2009년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개발전략으로 발표되면서 북중접경지역 공동개발도 본격화되었음.

5) 2010년 북중 간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체결.

인적 교류

근로 목적의 중국 내 북한 입국자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의류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 목적의 중국 내 북한 입국자는 전체의 약 50%에 육박한다. 중국으로 입국하는 전체 북한인은 2010년 약 12만 명에서 2013년 약 21만 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21.3%씩 급증하였다. 이 가운데 근로 목적의 입국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현재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는 등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2년 북한이 중국 접경도시와 대규모 인력파견 협의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북중 간 접경지역 내 북한 인력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6] 업종별 중국 내 북한 인력은 의류 제조업 종사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은 주로 의류 제조업, 도로 건설, I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의류 제조업 종사자가 60~70%를 차지하는 등 단순노동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對중국 파견 북한 근로자의 1인당 인건비는 최저 월 200 달러에서 최고 월 1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 목적별 중국 내 북한 입국자 추이 〉



자료 : 무역협회(2014)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 )는 비중을 의미.

〈 북중 접경지역의 인프라 개발 현황 〉

분야	주요 내용
의류 제조업	– 전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인력의 60~70%로 추정 – 1인당 인건비 : 월 200~300 달러(2012년)
도로 건설	– 1인당 인건비 : 월 200 달러수준(2011년)
IT 소프트웨어	– 1인당 인건비 : 월 1만 달러(2012년)

자료 : 무역협회(2014) 및 KOTRA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 )는 기준연도를 의미.

6) 2012년 북한은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투먼과 훈춘 등에 각각 2만 명의 노동자를 공급하기로 중국 지방도시와 협정을 체결.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내 북한 노동자의 입국 현황과 시사점』, 2014. p. 5 참고.

종합 평가

최근 5년간 북중 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교역 · 투자 · 인적 교류 등 경제 전반적으로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되고 있다. 2011년 이후 북한 교역의 對중국 의존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10.9억 달러에서 2014년 11.8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북한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중 광물성 연료 등 광물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의 對북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북중 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 역시 중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류 제조업 종사자가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

구분		내용
교역	對중국 교역 의존도 확대	– 북한 對중국 교역 의존도 : 70% 수준(2011년 이후 현재까지) – 북중 교역의 최근 5년('10~'14년)간 연평균증가율 : 18.6%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	– 북한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 · 2010년 적자액 10.9억 달러 → 2014년 적자액 11.8억 달러
	광물이 최대 수출입 품목을 차지	– 최대 수출품목 : 광물 · 2010년 전체 수출의 33.4% → 2014년 전체 수출의 40.3% – 최대 수입품목 : 광물 · 2010년 전체 수입의 21.0% → 2014년 전체 수입의 17.2%
투자	중국의 對북한 투자 증가	– 2003년 신고 잔액 기준 0.1억 달러 → 2013년 5.9억 달러 – 중국의 북중 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 접경지역 다리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 · 위화도 황금평 및 나선 경제특구 개발
인적 교류	북한의 對중국 인력 유입 증가	– 2010년 5.4만 명 → 2013년 9.3만 명(연평균 21.3%씩 증가) – 의류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60~70%로 추정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시사점

최근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과는 차별되는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 경협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을 양자 간 협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는 차별화된 남북 경협 추진을 통해 남북간 경제 · 사회 전반의 상호 의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남북 경협 활성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간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하여 한반도 접경지역 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중 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 정세를 적극 활용하여, 접경지역 중심의 남 · 북 · 중 · 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소프트 파워(Soft Power) 활용을 통해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인력, 광물자원, 관광자원 활용 관련 남북 경협과 북중 경협이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의 여력이 북중 접경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 및 북중경협 실무자들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경제 정보 뱅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統